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96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30)모구리오름, 영주산
동쪽 지세를 만든 아미형의 오름

입력 : 2004. 05.21. 00:00:00



모구리오름 능선안에 자리잡은 알오름. 탐사단원들이 오름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5월 8일 탐사팀은 한라산국립공원내에 있는 성판악과 사라오름 탐사를 계획했으나 비날씨로 일정을 변경해야 했다. 탐사는 제주 동부지역 오름 중 성산읍 난산리 소재 모구리오름과 표선면 성읍리 소재 영주산에서 계속됐다. 이 오름들은 '한라대맥'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탐사 필수코스로 계획된 곳이다.

△모구리오름

동부관광도로 성읍리 네거리에서 다시 수산쪽으로 4km쯤 이동하면 오름 입구에 도착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성산읍 난산리 지경이다.

오름 서쪽 사면을 반바퀴쯤 돌아가면 정상으로 향하는 산책로가 나 있다. 10분쯤이면 이내 정상에 이를 수 있다. 안개가 끼어 주변 조망이 어렵지만 남쪽으로 벌어진 말굽형 굽부리에 또 하나의 알오름이 오름의 멋을 더해준다.

모구리오름의 유래는 모양새가 마치 어미개가 새끼를 껴안은 것과 같다고 하여, 이를 한자로 모구악(母狗岳)이라고 전해진다. 이 의미를 알오름에서 느낄 수 있다. 이 알오름은 일명 '개동산'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다.

탐사위원 정차연박사는 "모구리오름과 알오름의 암질이 서로 다른데, 모구리오름의 본체가 형성된 후 이와는 무관하게 용암만 분출한 지형이 알오름으로 판단된다. 제주지역 오름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했다.

오름서쪽에는 야영장이 들어서 있다. 16만여평방m에 취사장과 놀이마당, 오름산책로, 캠프파이어, 야영태크 등 편의시설은 물론 극기훈련장, 잔디운동장, 놀이마당, 자전거 하이킹 등 놀이시설도 다양하다. 특히 모구리오름 산책로는 야영객들에게 산림욕의 기쁨도 준다.

지난 2002년 11월에는 모구리오름 일대에서는 전국체전 종목으로 산악자전거(MTB) 경기가 열리기도 했다.

△영주산

영주산 하면 떠오르는 마을이 성읍민속마을이다. 조선 초기 제주는 섬의 정점인 한라산을 기준으로 북쪽은 '제주목', 한라산 남쪽인 지금의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서쪽은 '대정현', 동쪽은 '정의현'이라 하여 1914년까지 5백년 가까이 세 지역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갖추어 왔다. 성읍 마을은 바로 정의현의 옛고을이자 도읍지였다.

성읍마을의 품위는 5백년 가까운 도읍지였다는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 병풍처럼 마을 뒤를 둘러싼 영주산이 있기에 더욱 돋보인다. 제주 최장의 하천인 '천미천'도 성읍마을을 끼고 흐른다.

영주산은 한자뜻풀이 그대로 신령스러운 산이다. 신선이 산다는 곳이다. 한라산을 가리켜 영주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름을 한라산의 분산으로 여겨 신산시(神山視)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산봉우리에 아침안개가 끼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여 신령스럽다는 뜻도 담고 있다.

영주산은 삼나무와 해송이 적지 않지만 아직은 초원오름의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오름 동쪽 초원을 따라 정상으로 오르다보면 오른쪽으로는 광활한 목장지대, 왼쪽은 성읍민속마을이 코 앞이다. 등 뒤로는 멀리 일출봉까지 감상할 수 있어 그 경관이 압권이다.

오름은 정상으로부터 남동쪽으로 벌어진 대형 말굽형화구를 가지고 있다. 동쪽 능선을 따라 정상까지 올라가 보면 북서쪽은 매우 가파르다. 서쪽으로는 천미천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데 이 하천의 명소중 하나로 뱀의 기어다니는 형태의 '사행천'의 모습을 영주산 정상에서 감상할 수 있다. 사행천 하류지점에는 저수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화구륜을 반쯤 돌아 남쪽 소로를 따라 오름을 내려오면 굽부리 말단 지점에 큰 규모의 '괘'가 있는데 '넓괘'라 불리는 바위 굴이다. 산신제, 백중 날 마소의 번식을 기원하는 제의를 지냈던 곳으로 전해진다.

/특별취재팀

[전문가 리포트]영주산 文氣는 정의고을로 이어져

오월의 환희를 안고 연녹색 부드러운 산의 능선을 오르며 생각한다. '정의고을 영주산에 올라 보지 않고 동쪽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이다. 상서로운 뱀이 꿈틀거리듯 유유히 휘돌아 감아 도는 천미천의 영험한 줄기가 문기(文氣) 뻗어난 영주산의 정기로 맺혀 정의고을에 꽃을 피우고 있다. 장엄한 영주산의 긴 몸체는 정녕 하늘로 승천하는 비룡의 형상을 닮아 북쪽으로 머리를 들고 동남쪽으로 길게 꼬리를 내렸다.

심원한 구곡(九曲)의 골짜기는 굽이굽이 명당의 물줄기를 형성하고 수려한 산체(山體)는 수만의 병사를 호령하는 오영장군의 위풍으로 그 위용을 드러냈다. 봉우리는 높고 낮게 쌍봉으로 솟구친 듯 한데 하나는 문필봉으로 일어나고 또 하나는 둥근 달의 형상이 되어 반월형(半月形)으로 떠올랐다. 서남쪽에서 바라보면 비룡양천형(飛龍仰天形)이요 동남쪽에서 바라보면 무공단좌형(武公端坐形)이라.

흘러내린 오른쪽 백호봉은 기운이 넘쳐 하늘에 닿은 듯 하고 청룡의 줄기는 힘차게 파도치듯 내려와 기운 생동하면서 부귀쌍전의 기상을 자손만대에 전한다. 앞쪽으로 보이는 남산봉이 정겨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동남쪽과 서남쪽에 밝은 생기(生氣)가 이어져 그 사이로 많은 재사(才士)가 나와 예향의 고을로 거듭나게 하는데 서북쪽에도 또한 천미천을 경계로 양명한 명당지가 서린다.

예로부터도 동쪽의 지세는 아미형의 예쁜 눈썹을 닮아 미인이 많이 나고 벼슬하지않아도 번창하여 출중한 문장재사가 난다고 했다.

제주전통의 맥이 흐르는 곳에 흥겨운 풍류의 가락이 산천에 울려 퍼지고 연이어 '용천검', '관덕정 앞', '중타령', '질군악', '오광산타령', '계화타령', '동풍가', '사랑가', '잣은 사랑가'등 회한의 질곡을 승화시킨 정겨운 노랫소리가 줄줄 흘러 나오니 역시 민요의 본향이리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자연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온 사방에 도로뿐인 제주도.... 그 공허한 공간속으로 제주의 참다운 모습은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신영대 탐사위원(제주관광대 교수/ 풍수분야)>

[전문가리포트]모구리와 알오름의 형성과정

모구리는 남제주군 삼달리에 위치하는 오름인데, 폭이 1.6Km에 이르는 완만하면서도 둥글게 주변보다 높은 현무암이 노출된 동산과 그 동산의 북동쪽에 경사가 더 급하면서 높은 장경 약 600m의 작은 송이 산체로 구성되어 있다. 송이(분석)로 구성된 부분만을 모구리오름이라 한다면, 모구리는 다랑쉬와 같은 전형적인 분석구 오름의 형태를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이유에 의해 대부분의 산체가 붕괴되고 서쪽에서 북쪽까지의 약 1/4 정도의 산체만 남은 완전하지 못한 형태이다.

모구리가 지형적으로 둥글게 감싸 보호하는 것 같은 중심부(모구리를 형성한 화산의 분화구로 판단됨)에는 알오름이라 부르는 작은 언덕이 있다. 이 언덕은 송이로 구성된 모구리와 달리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마치 송이로 구성된 오름에서 볼 수 있는 한쪽 방향(여기서는 남쪽)이 트인 작은 중심분화구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주변 현무암이 분포하는 지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부분이다.

한편 모구리를 구성하는 송이에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크기의 사장석과 휘석광물 결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알오름과 주변 동산을 구성하는 현무암은 광물결정을 쉽게 눈으로 관찰할 수 없다. 이러한 성분의 차이는 모구리와 알오름을 구성하는 현무암이 시기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 졌음을 의미한다.

즉, 먼저 스트롬볼리안 화산활동에 의해 현재의 알오름 근처가 사발형의 중심 분화구이면서 원추형의 초기 모구리 화산체를 형성하였을 것이며, 이 초기 모구리를 형성한 화산활동이 완전히 끝나고 얼마간은 화산활동의 휴식기가 왔을 것이다. 이후 마그마 성분이 상당히 다르면서 주로 용암을 분출한 화산활동이 이전의 모구리를 형성한 화구를 중심으로 다시 발생하여 남쪽과 서쪽방향으로 다량의 용암을 유출시켜 알오름과 주변의 동산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이때 용암이 흘러가면서 현재의 모구리 부분만 남기고 초기 모구리 화산체의 대부분을 붕괴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차연 탐사위원(농업기반공사/지질분야)>

특별취재팀/ 한승철부장(기획특집부)

강시영·이윤형차장()

표성준(편집부)·강경민기자(사진부)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